

美 육조사 한국분원 개원
매주 일요일 참선법회



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 현웅 스님(사진)은 5월 23일 서울 가회동에 육조사 서울분원 육조사(선원장 현웅)를 개원했다.

도심 속의 선원으로 대중에게 문을 연 가회동 육조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좌선, 법문 및 질문과 답변 등으로 정기 참선법회를 갖는다. 현웅 스님은 <육조단경> <선문활요> <서장> <진심직설> <신심명> 등의 선어록도 강설하며 근기에 맞게 출제가 수행자를 제할 계획이다. 현웅 스님은 초심자는 물론 공부길이 막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02)766-5291 김재경 기자

조선 궁녀가 한글 음역한
'법화경' 원효사서 발견

승유역물 정책을 편 조선시대에 궁녀가 만든 한글 음역 <법화경>이 발견됐다.

의정부 원효사(주지 범승)에서 발견된 이 <법화경>은 조선 궁녀가 성불을 기원해 만든 '공덕경'이란 점에서 당시 불교의 영향력이 궁궐에도 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경전이 한글로 음역되어 당대의 한글 표음법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가치도 높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화경>은 닥종이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녹색 비단 표지를 씌운 경전으로 전체 2권 분량이다. 오유진 기자

대불어 지도자 연수
6월 12~13일 속리산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예)는 6월 12~13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37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지도자 5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도교사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특별법문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초심자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인형극, 놀이속의 과학,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불교교육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과정으로 어린이 지도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교구교재에 부처님을 마음을 담자'는 특강을 마련된다. (051)864-4570 부산=천미희 기자

동국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응용불교학과 등 6개학과... 조계종 정부에 지원요청

동국대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보광)은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전문인력양성과 이론중심의 불교학자양성을 위해 심도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년전부터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현재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가시책으로 권장해왔던 고도 전문인력 양성분야로 의학, 법률, 통역, 경영, 국제통상, 미디어 등으로만 한정해 놓고 있어 불교학 등과 관련한 전문대학원의 설립 허가를 미뤘었다. 하지만 이

번에 추진될 불교전문대학원은 모두 6개 학과로 ▲응용불교학과(30명) ▲불교복지학과(8명) ▲국제포교역경학과 ▲장례문화학과 ▲문화재문헌학과 ▲한국전통문화학과(각7명) 등 실용불교학이 중심이어서, 교육부의 전문대학원 설립명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동국대 측의 설명이다.

조계종 총무원도 동국대의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스님은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동국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동국대가 추진중인 불교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타종

교와 비슷한 수준의 불교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갖춘 전문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불교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문화이나 철학박사 학위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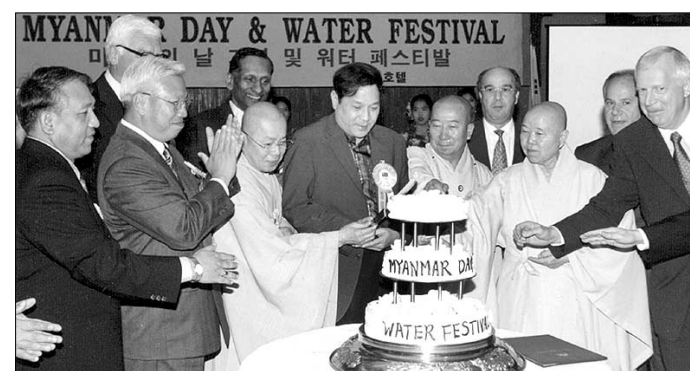
실무를 맡고 있는 불교대학원 김대우 과장도 "김영삼 정부 이후 기독교계열의 신학전문대학원들이 31곳이나 설립됐지만 불교계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 유일하다"며 종교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설립 허가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대학원 제도는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실무중심의 전문대학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특수대학원 형태인 동국대 불교대학

원은 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설립될 전문대학원에서는 고도의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학부 전공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불교대학원장 보광스님은 "불교계가 필요한 인력은 교학계와 사회적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 성취되기를 모든 불교인들이 바라고 있다"며 2006학년도 전문대학원 설립의지를 밝혔다.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교육부 허가 여부는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한국과 미얀마의 친선 우호를 다지기 위해 4월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얀마의 날' 행사 모습.

미얀마에 불교기술대학 들어선다
한-미얀마교류협, 내년 초파일 건립키로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불교기술종합대학이 들어선다. 미얀마와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미얀마교류친선협회(공동회장 홍파·목탁)는 미얀마정부와 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양곤(市) 동부지역 신시가지에 '기술교육종합대학(비인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2001년부터 건립을 준비해 온 불교기술학교 건립은 최근 미얀마정부로부터 1만여명의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됐다. 4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얀마의 날' 행사에서도 미얀마 상공회의소와 미얀마·한국친선협회(회장 우킨마우)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앞서 2월에는

'미얀마·한국친선협회'와 경제·종교·문화·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친선협력 및 교류를 위한 미얀마의 조인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미얀마교류친선협회는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법당 1개동과 교육·숙소동 2동 등 연면적 1천5백여평 규모로 기술교육종합대학을 건립한다.

기술교육종합대학에서는 국민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차 운전·정비, 봉제, 미용, 양재 등 각종 기술교육과 한국·일본어 어학 교육이 실시된다.

목탁 스님(미얀마 명예홍보대사)은 "불교형제국인 미얀마에 한국불교의 정성과 온정이 전해져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생활 속 마음공부의 장 열린다

중앙신도회, 하안거 백일법문 논강 진행

하안거 기간을 맞아 재가불자들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6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보름에 한번씩 총 8회에 걸쳐 조계사 극락전에서 진행하는 '재가불자 하안거 <백일법문>' 논강이 바로 그것. 이번 논강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주교재로 △생활인의 마음 공부법(6월 3일)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의(15일) △

대중토론-불교란 무엇인가(29일) △중도란 무엇인가(7월 13일) △마음의 연구(27일) △선사상에 대하여(8월 12일) △선이란 무엇인가(24일) △종합수련회(9월 11~12일)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제와 지정논평자로는 원택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신희섭 박사 등이 나선다.(02)733-7277 김은경 기자



참석자들이 초의 선사 동상에 헌다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형 기자

초의 선사 탄생기념 문화제 열려

조선 후기 대산사이자 '다성(素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 선사(1786~1866) 탄생 218주년을 기념하는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가 5월 22~23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열렸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운)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서삼석 무안군수와 (사)예명원 손민영 이사장, 고세연자와 고세연 이사장을 비롯한 1만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길놀이와 국악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진 23일에는 초의 선사 탄생지 경내의 연못 초의지(柳衣池)와 초의지 안에 마련된 용호백모정(容湖白鶴亭) 개장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초의 선사 헌다의식과 '초의 등(燈)' 밝히기, 찻잔 및 도자기 만들기, 차떡만들기, 제다시연 등의 참여행사와 어린이 행다시연, 중국과 대만 대법시연, 초의 선사 패물 봉안, 차상보 전시회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적은 찻잔으로 초의 선사에게 헌다를 하는 '헌인헌다제'에는 차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세미나에서는 허홍식(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한국 불교에서 초의 선사의 위상'을, 배종민(전남대) 교수가 '초의 선사의 예술세계'를, 윤운 스님이 '초의 선사의 등다송에 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무안=여수형 기자

문화재 도난 잇따라

5개월간 14점 사라져...대책마련 시급

최근 사찰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4점의 사찰 소장문화재가 도난당했다. 이 중에는 지방문화재도 포함돼 있어 사찰 소장 비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에 대한 도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월 13일 새벽 제천 정방사에서는 3점의 성보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4월 2일 고창 용화사

에서는 지방보살좌상 1점이 도난당했고, 3월 22일 상주 독수리에서는 석탑 옥개석 3점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고창 문수사에서는 진광 대왕상·오관대왕상 등 성보문화재 6점을, 경북 경주 금정사에서는 지장탱화 1점, 영주 유전리에서도 미륵불상 1구 등을 각각 도난당했다. 오유진 기자

빙의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교육내용

- 1.최면이란 무엇인가 : 최면개론,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명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 2.연령퇴행 기법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기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맞게 한다.
- 4.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 5.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와의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세 살짜기를 통한 원격 빙의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된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과파, 해원과정, 재점진 방지 영치유법.
-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운영을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지문한다.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 2층 천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WWW.HYPNOS114.COM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채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00사00 합장



大野 眞 宰 賢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이카데미 원장 한국생활회담심리학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부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총장대학교 침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이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최면이카데미 인종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6월 14일 /21일 /28일 /7월 5일 /12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지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